루소의 자유로운 개인(個人)과 괴테의 탐험하는 개인

구연상(숙명여대)

1. 루소의 자유로운 개인

자유(自由), 그것은 못나누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Jean Ja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1762) 제1부 제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람은 세상에 자유인으로 태어났음에도 곳곳에서 구속받고 핍박받아 신음한다.** 남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자 역시 그들 못지않은 심한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다....이러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1]

- 루소는 어머니 없이 자랐다. 시계제조업자였던 아버지는 루소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피하며, 루소의 친 형은 가출하게 되고, 루소는 결국 외삼촌 손에서 자라게 되지만, 12 살부터는 소송서류를 베끼는 견습공과 동판을 조각하는 견습공 생활로 독립하게 된다.

- 루소는 『학문 및 예술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1950)으로 널리 유명해지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1955)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사회 계약론(Le Contrat social)』(1762)과 같은 해에 출판한 『에밀(Emile)』이 금서로 지정되고, 저자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에서 루소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적 불평등**을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계약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 루소는 불평등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 **평등한 세상**을 먼저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 만일 인류의 출발 단계인 자연 상태가 불평등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평등 상태였다면, 현재의 수많은 **불평등의 근원**은 자연 상태에 뒤이어 등장한 문명 상태에서 찾을 수밖에

[1] 장 자크 루소, 방곤 옮김, 『사회계약론(Le contrat social)』(1762), 신원문화사, 1991. 8쪽.

없다.

-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은 특권 계급에 의한 '이권과 권력의 독차지(獨-)'**를 꼽을 수 있다.

> 누군가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불평등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폭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폭력이 제도화 되고 구조화 됨으로써 불평등한 사람들은 폭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게 되고 영구적인 노예가 된다.

> 루소는 **불평등의 주요한 기원**으로서 학문과 예술을 꼽았다.

> 현대에 **피에르 브르디외**(Pierr Bourdieu, 1930~2002)는 **교육을 통한 구별짓기**(distinction)의 문제를 제기했다.

> **라이프니츠**는 예술 작품을 친근하게 느끼는 방식을 **"여린 지각(little perception)"**이라 불렀다.

> 브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몸에 밴 것"**

- 교육 기회의 평등은 지식이나 부의 누적적 증가를 막아 준다. 학교교육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몸에 밴 것(아비투스)'을 뛰어넘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평등과 형평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 2천 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 **조선시대** 학문은 사대부만의 몫이었다. 그들은 한문몰입교육을 통해 학문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그로써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 **현재의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은 국민차별의 숨겨진 이데올로기이다.[2] **차별이 제도화 되는 사회**는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다.

- 루소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세상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외쳤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사회와 그 사회의 법률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루소가 인정한 사람의 삶의 기본법칙은 오직 하나 **"자기 보존"**이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을 통해 자기 것을 확장해 나가려는 이기욕(利己慾)이 아니라 '못나누미'로서의 자기를 독립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자기애(自己愛)를 말한다.

> **개인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애이다**. 자연(自然)의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2] 이에 대해서는 구연상, 「글쓰기와 사무침」(『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채륜, 2009) 살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결코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 자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그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뿐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때는 오직 그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뿐이므로, 만일 그가 사회를 구성한다면, 그의 사회 구성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기 보존을 위한 것밖에 없다.

> 이러한 자기 보존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약의 원리**뿐이다.

> 계약은 오직 자유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루소의 사회 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를 자유인으로, 즉 서로를 주권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자유와 주권은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또 나뉠 수도 없는 것이다.

- **루소의 최대 관심사: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 기존의 불평등 사회는 온갖 차별과 구속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괴해 왔다.

> 그것은 강자가 아닌 **"보편적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부를 만드는 일

- 자연 속의 사람은 그 어떠한 사회적 억압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개인, 즉 자유로운 개인이다. 내가 못나누미(개인)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가 요구된다.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즉 못나누미이다.

2. 괴테의 탐험하는 개인

- "못나누미"라는 개념은 "**나는 나다.**"라는 말로 잘 드러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말로써 못나누미의 아르키메데스 점을 발견했고, 그것에 기초해 '**못나누미(나)**'가 삶과 느낌과 생각의 바탕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로크는 거기에 가짐의 권리(소유권)를 덧입혔고, 루소는 거기에 다시금 자유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서양에서 개인의 혁명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는 탐험하는 개인의 탄생 단계이다.

이러한 탐험의 대표적 인물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꼽을 수 있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von Mozart, 1756-1791)의 **'돈 조반니(Don Giovanni)'**는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 1749-1838)가 대본을 쓰고, **1787년 10월** 프라하에서 초연되었던 오페라의 주인공 이름이다. 이 오페라는 에스파니아에 전해 오는 돈 후안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는 끊임없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모험에 대한 열망**은 전통적 시각에서 보자면 부도덕한 방탕이고, 저주 받을 파괴이며, 회개할 수 없는 죄악이고, 결국 자신을 죽음에로 몰고 가는 파멸일 뿐이지만, 모차르트는 모든 것을 비웃어 버린다.

근대적 개인의 대표 상징은 괴테의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진 **파우스트**이다. "**Faust**"란 이름은 라틴어로는 행운을, 독일어로는 주먹을 뜻한다. 그는 마술사였는데 1480년경 뷔르템베르트 북부 크리틀링겐이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나 1540년경 프라이부르크 남쪽에 있는 슈타우펜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술이라는 뜻은 "**매직(magic)**"이란 말은 예언자들로 유명했던 메데아의 옛 승족(僧族)에서 유래된 것이고,[3] 또 성경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Simon Magus)와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

파우스트가 마술사였다는 점은 서양의 '개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 마술사는 신을 믿는 자라기보다 신의 능력을 모방하는 자, 또는 그것을 넘어 스스로 신인 양 착각하는 자로 오해를 받게 되고, 급기야 악마와 계약하는 자로 선언되기에 이른다. 중세 기독교 교회는 **악마와의 전쟁**을 통해 사회적 지배력을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3] E. M. Butler, *The Myth of the Magus*, Cambridge, 1948. p. 15-20.

교회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공포 속에서 지속시켰다.

마술사에 대한 적대감

정통 기독교의 악마관에 초석을 놓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과 육체, 즉 악마의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서기 547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사탄은 영속하는 것이며, 사탄이 있음과 그의 능력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공포한다. 성직자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마귀를 쫓아내고 이단의 마술을 절멸시킬 의무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행성사와 죄의 사면의 권리도 함께 가졌다. 이로써 사람들은 사탄의 권능은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사상에 따라 **모든 마술행위는 악마와의 연합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마술은 이단 행위가 되었으며, 결국 마술사들은 사악하다는 견해가 팽배해졌다. 종교개혁의 시발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도 "마녀들에 대해 절대 동정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들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86년에는 트리어 공국에 여름이 늦게 찾아와서 작황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게 되었는데, 이에 정치가들은 다음해에 그에 대한 **정치적 희생양**을 찾아냈고, "118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로부터 겨울이 길어진 것은 그들이 주문을 외운 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화형을 시켜 버렸습니다.

루터의 교육사업과 자국어 문학 증진책을 통해 급증한 1580년 당시의 **독서 대중**은 마술사나 마녀 또는 귀신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확립되었으며, 당시 독일의 수도였던 프랑크푸르트 인쇄업자들이 애호하는 분야였다.

근대까지의 기독교 사회에서 마술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사회적으로 공격의 대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587년 **『파우스트 책(Faustbuch)』**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실존 인물로 설정된 파우스트 박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악명 높은 요술쟁이이자 주술사 요한 파우스투스 박사가 일정 기간 자신을 악마에게 팔아 기묘한 모험을 겪으며 지내다가 마침내 응분의 처벌을 받는 이야기. 독단적인 자, 호기심

많은 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참담한 전례, 혐오스러운 사례, 그리고 신실한 경고로서 파우스트의 유고에서 취재 편집하여 펴냄."[4]

파우스트는 방랑자였다. 떠돌이 마술사 파우스트는 천국과 지상의 **모든 비밀을 탐구**하고자 **마술에 심취**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금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악마와 거래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기독교 전통의 사회에서 악마는 질서를 깨뜨리는 자, 호기심 많은 자, 유혹하는 자, 독단적인 자, 끝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로 불린다. 그는 악마의 본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의 악마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피"**로 서명한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령은 파우스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로 하고, 또 파우스트의 질문에 대해 오로지 진실만을 대답하기로 **약속**한다. 그 대신 악마는 파우스트의 욕망이 충분히 만족되는 한 "현재 편지를 쓴 날로부터 24년 후에 뜻하는 대로 육신이건 영혼이건 살이건 피건 재산이건 파우스트의 모든 것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5] **자신의 피로 서명된 법적 문서**로 인해 파우스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악마에게 저당 잡힌 꼴이 되지만, 여기에는 어떤 강제도 명령도 없이 모든 진행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침내 파우스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불경스러운 자의 처참한 최후**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마법과 기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가르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교훈을 어기는 자는 어김없이 참혹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죄값을 받는다는 것**만큼 못나누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도 없다. 개인 자신이 저지른 죄는 오직 그 자신만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저마다가 지은 죄는 언제나 "저마다 자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서 개인을 "죄의 주체"로 각인시키는 동안 서양의 근대 사회 곳곳에서는 "소유의

---

[4] *Historia von D. Johann Fausten: Neudruck des Faust-Buches von 1578*, hrsg. von Hans Henning, Halle, 1963. 여기서는 『근대 개인주의 신화』(이언 와트 지음, 이시연 . 강유나 옮김, 문학동네, 2004) 45 쪽에서 재인용.

[5] 『근대 개인주의 신화』, 47 쪽.

주체", "정치의 주체", "학문의 주체", "자유의 주체" 등과 같은 "새로운 개인들"이 자라났고, 이러한 개인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파우스트에 대한 평가도 급속히 달라졌다.**

곳홀트 **레싱**(Gotthold Lessing, 1729-1781)은 파우스트의 지식 추구를 고귀한 일로 보았다. 그는 파우스트가 신과의 화해로 악마의 사슬로부터 벗어난다는 내용의 희극을 썼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6]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파우스트』** 제1부는 다음과 같은 파우스트의 탄식으로 시작된다.

"아아! 나는 이제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유감스럽게 신학까지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속속들이 연구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난 가련한 바보에 지나지 않으며,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것 하나도 없도다!"[7]

파우스트는 마술이나 정령들의 도움을 빌어서까지 자연의 섭리며 의술의 기술 등을 얻고자 했지만,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싶어 한다.** 이는 근대의 **실험과 관찰의 정신**을 잘 표현한 것이다. 파우스트는 더 이상 어떠한 창조성도 창조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독배를 마시고 죽고자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와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메피스토펠레스 : 나 여기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시중을 들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소이다. 만일 우리가 저기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이 내게 똑같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8]

---

[6] 찰스 반 도렌 지음, 오창호 옮김, 『지식의 역사 2』, 고려문화사, 1995. 96 쪽.
[7] 괴테 지음, 이인웅 옮김, 『파우스트』, 문학동네, 2008. 17 쪽.
[8] 『파우스트』, 49 쪽.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은 파우스트 자신이 허송세월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해하거나, 환락에 빠져들어 버리는 즉시 완료되고, 또 파우스트 자신이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외치면, 그 순간이 곧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

제1부에서 30년이나 젊어진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파우스트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그레첸에게 다짜고짜로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레첸**은 쥴리엣 정도의 나이지만 신데렐라처럼 집안일을 돌보느라 여인으로서의 낭만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그녀는 파우스트가 자신의 장롱에 몰래 놓아두고 간 값진 패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 뒤 거울 속의 자신이 되기를 꿈꾼다. 그녀는 중세의 가치관에 속박되어 파우스트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하지만, 별꽃을 꺾어 자기와 파우스트 박사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점쳐 보고, 결국 그 둘은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레첸은 홀로 남겨진 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물에 빠트려 죽인 죄로 참수형을 받게 된다. 그레첸이 참수를 당할 그날 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우스트는 감옥으로 그녀를 구하러 왔지만, 반쯤 실성한 그레첸은 탈옥을 거부한다.

"가서는 안 돼요. 내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요. 도망친다고 무슨 소용 있겠어요? 모두들 날 노리고 있는데요. 걸식을 해야만 한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인데. 게다가 **양심의 가책**까지 받아야 하는 걸요! 낯선 고장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일인데, 그래도 결국 난 붙잡히고 말 거예요!"[9]

그레첸은 끝내 자신이 태어난 중세적 세계관에 머물러 탈옥을 거부한다. 그녀는 스스로의 세계를 건립할 용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 그녀는 바깥 세상을 두려워한다. 옛날의 그녀에게는 파우스트만이 전부였지만, 이제의 그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속죄의 길을 가고자 한다.

『파우스트』 제2부는 파우스트가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파우스트는 헬레나와의 환상적 사랑에서 깨어나면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위대한 일을 할 여지가 남아 있다**. 경탄할 만한 일을 성취해만 하겠

[9] 『파우스트』, 135 쪽.

다. 나는 대담한 노력을 하고 싶은 힘을 느끼노라."[10] 그것은 지배권을 얻고,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즉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은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 따라서 메피스토펠레스 따위의 악마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자유로운 정신은 모든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자연을 정복할 줄 안다. 자연의 정복은 곧 노동을 통해 가능하고, 그것은 공장의 건립을 통해 상징화된다.

파우스트는 황제를 도와 적의 침략을 물리친 뒤 해변 전체를 부여받게 되고, 이 새로운 대도시의 전권을 문서로써 넘겨받게 된다. 즉 판결권, 세금징수권, 화폐주조권 등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마지막인 제5막은 파우스트가 **바우치스 할머니와 필레몬 할아버지 부부**의 문제를 잘못 풀어가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값나가는 패물로 그레첸을 유혹했고, 그로써 그녀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행**에 빠트리고 말었던 것처럼, 자신의 선의를 강제로 실천함으로써 그와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뉘우친다. 이때 근심의 정령이 파우스트를 찾아와 말한다.

"근심 : 누구든지 제가 한번 잡기만 하면, 그에겐 온 세상이 소용없게 되지요. 영원한 암흑이 내리덮이고, 해는 뜨지고 않고 지지도 않으며, 외면의 감각은 완전하다 하여도 내면에는 갖가지 암흑이 깃들어 살고, 온갖 보화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제 것으로 만들어 즐길 수가 없지요. 행복도 불행도 시름으로 변하고, 풍부한 속에서도 배고파 굶주리며,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모조리 다음날로 밀어젖히고, 오로지 미래만을 기대하고 있을 뿐, 완성될 날이라곤 결코 없을 거예요."[11]

파우스트는 근심의 정령이 내뿜은 입김으로 **마치 오이디푸스처럼 장님이 되어** 버린다. 감각의 눈이 멀면서 그는 모든 것을 더욱 환하게 깨닫게 되어 외친다.

"정해진 일은 당장에 해치워야만 하리라. 엄격한 질서를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면, 비길 데 없이 높은 보수를 받으리라. 이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의 손 부리는 하나**

---

[10] 『파우스트』, 319 쪽.

[11] 『파우스트』, 361 쪽.

의 정신으로 충분하리라."[12]

이것이 바로 **파우스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정신이**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썩은 물 빼내기 공사를 필생의 마지막 공사로 결심하고 일꾼들을 독려한다. 파우스트의 꿈은 수백만의 백성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 즉 자연의 폭력에도 안전한 **"천국과도 같은 땅"**을 마련해 주어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며 스스로의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싸워 얻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마련한 자유로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갈 모습을 떠올리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는 가운데 외친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13]

파우스트는 약속에 어긋나게 신의 구원을 받는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우스트』 맨 앞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어보아야 한다. 천국에서 "주님"과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옛날 여호와와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를 벌였던 것과 똑같이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한다. 내기의 제목은 **"선한 사람 파우스트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파우스트는 악령의 유혹에 이끌려 감각적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식욕과 지배욕에 불타기도 하지만 끝내 인류에 대한 사랑, 즉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레첸이 피운 장미꽃의 힘이 힘입어 악한 자들을 물리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파우스트와 못나누미의 문제

만일 우리가 파우스트가 가졌던 악마의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할까? 파우스트는 사람의 감정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이 감정은 사람에게서 결코 떼어낼 수

[12] 『파우스트』, 362 쪽.
[13] 『파우스트』, 365 쪽.

없는 '**못나누미**'이다. 이것은 **사람의 소유권과 지식권 그리고 지배권만큼이나 중요한 '못 나눌 권리'이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못나누미의 권리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다. 그는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 즉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것"**, 달리 말해, "가장 사람다운 삶"을 찾고 있다. 그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3. 강의를 마치며

저는 이 강의에서 "철학(哲學)"이란 말을 "슬기 맑힘"으로 새기고자 합니다. "**슬기**"는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드나드는 일, 즉 인내와 노력을 뜻합니다. 슬기는 단순한 '지혜 사랑'도 아니고, '이성적 진리에 대한 탐구'와도 다릅니다. 슬기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줄 앎**'을 말합니다. "저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방식의 전체, 말하자면,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일컫습니다. "저마다"는 "올바름(정의, 正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은 곧 모두가 고루 두루 잘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루 두루 잘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저마다를 고루 두루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맑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기를 맑힌다고 우리가 실제로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악'을 물리칠 때만 가능합니다. 악의 문제는 존재나 인식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철학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악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악은 그 희생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어 평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은 제도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도적 악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정의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저는 시대마다 악을 물리쳐 온 사람들과 그들의 철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민중은 지배 계급의 억압에 저항하거나 그들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악의 세력을 물리쳤고, 대중은 독재에 대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악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21세기 퇴마의 주체를 "지중(智衆)"으로 규정합니다. 지중(智衆)은 분명 대중(大衆)에 속해 있지만, 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중은 공동체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성인 집단을 말합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슬기 맑힘의 주체로서 개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개인(個人)"의 출발어인 "individual"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의 뜻으로 **사람의 절대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신**을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이성

또는 인격은 그 자신'의 몸(신체)과, 그리고 세계나 신과도 결코 더불어 나눌 수 없는 실체로 여겨졌습니다. 나의 정신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individual"이라는 말은 그 무엇과도 그리고 그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 즉 "못-나누미"를 뜻합니다.

저는 '못나누미'로서의 개인의 됨됨이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첫째, 로크의 소유하는 개인은 '못 나누는 것'으로서의 정신이 확장된 것으로서 자신이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는 모두 그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고, 둘째, 루소의 자유로운 개인은 자유가 모든 사람의 배타적 권리임을 나타내며, 셋째, 지식을 얻기 위해 탐험하는 괴테의 개인은 지식마저 저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었음을 말해 주고, 넷째, 이러한 못나눔의 정신은 근대인들에게 수많은 권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반면 그들 삶을 분열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은 결국 사람이 '못나누미'로서의 개인임과 동시에 '함께-나누미'로서의 사회인이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슬기를 맑혀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